

조선 후기 신분 제도의 변화

1. 양반

① 양반 수의 증가

이유: 농업이나 상업을 통해 부자가 된 상민과 노비가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.

→ 공명첩, 납속

결과: 상민과 노비들이 양반이 되면서 더 이상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자 나라의 재정이 심하게 부족하게 되었다.

② 몰락한 양반(잔반)의 등장: 양반 중에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일반 백성과 다름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생겼다.



<김홍도, 자리짜기>

양반도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.

2. 상민

- 부자가 되어 양반이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었다.
-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견디다 못해 살던 곳을 떠나거나 도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.

3. 천민

- 나라에서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비가 상민이 되도록(면천) 해 주었다. 이유 → 노비는 원래 세금을 내지 않지만 상민이 되게 해 주고 세금을 내게 해서 나라의 재정이 좋아지게 만들기 위함이다.



<김홍도, 타작도>

전통적인 양반의 모습

박지원의 <양반전>, 당시 사회 모습



1. <양반전>의 줄거리

- 어느 양반이 몹시 가난하여 여러 해 동안 고을 관가에서 곡식을 꾸어 생활했으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.
 - 소식을 들은 마을의 한 부자가 양반의 빚을 갚아 주고 양반을 사기로 한다.
 - 마을 군수는 이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부자에게 양반이 지켜야 할 일들을 알려 준다
 - 양반이 지켜야 할 일은 많고 좋은 점은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된다.
 - 부자는 양반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다.

2. <양반전>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 모습

- 농업과 상업으로 부자가 된 상민이 있었는데,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양반들이 많이 생겨났다.
- 부자가 된 상민과 가난한 양반이 신분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었다.
- 신분제가 변화하고 있었다.

조선 후기 농촌의 변화

1. 농사법의 변화

조선 초기에는 주로 논에다 직접 볍씨를 뿌린 후 벼를 길러 수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점차 **모내기법**이 널리 퍼졌다.

2. 모내기법

①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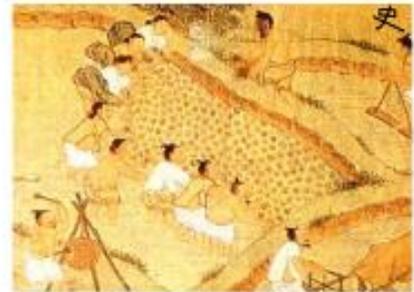
• 모판에 씨를 뿌려 싹이 난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다.

② 좋은 점

• 잘 자란 모를 골라서 심기 때문에 추수 때 **수확량이 늘어났다.**

• 잡초를 뽑는 횟수를 줄여 일손을 줄일 수 있다.

김홍도<모내기>



3. 새로운작물의 유입

-다른 나라에서 **고구마, 감자, 고추, 토마토** 등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와 이전보다 먹을거리가 많아졌다.

4. 농업 생산물의 상품화

-**인삼, 담배, 채소** 등을 재배하여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.

-자신이 농사지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.

<김득신, 대장간>

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수공업 생산이 늘어났으며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었다.



<김홍도, 담배쌔기> 조선 후기에 담배, 면화, 채소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어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다.



조선 후기 여성의 삶

1. 삶의 제약이 많았던 이유

-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의 유별을 강조하였음
-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낮아졌다.

2. 여성의 삶의 모습

- 재혼을 할 수 없었고 재산을 상속 받을 때도 차별을 받았다.
- 바느질, 요리와 같은 집안일에만 전념해야 했다.
- 사회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였다.
- 상민 여성들은 집안일과 함께 고된 농사일까지 했다.
- 하층민 여성들은 궁궐, 관청, 양반집 등에서 낮은 신분으로 일했다.

3. 삼종지도

-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법도로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,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,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는 의미.

조선 후기 여성의 생활 모습

- ▶ 밖에 나갈 때에는 얼굴을 가려야 했다. ▶ 정절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했다.



- ▶ 글공부보다 바느질을 하거나 수를 놓는 것이 여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.



- ▶ 상류층의 여자들은 가마를 타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.



여성 작가 허난설헌

- 어려서부터 글 솜씨가 뛰어났으나, 당시 조선 사람들은 여자의 재능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.
- 허난설헌이 세상을 떠난 후 허균이 누나의 시를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.
- 조선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허난설헌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여성 거상(거대한 상인) 김만덕

- 제주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기생의 딸이 되었다.
-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난 후 상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다.
- 제주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쌀을 사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.
- 만덕이 제주 백성을 구한 일은 정조에게 알려졌고, 당시 우의정 채제공은 <만덕전>이라는 책을 지어 만덕의 선행을 널리 알렸다.